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형태론

— 이른바 ‘흐라체’를 중심으로 —

고 영진

— 차례 —

- | | |
|-----------------------------|------------------------------|
| 1. 들어가는 말 | 의문법 씨끝의 형태 분석 |
| 2. 15세기 한국어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 3.1 형태소 ‘-야’
3.2 형태소 ‘-의’ |
| 3. 제주도 방언의 | 4. 맺는 말 |

〈서론〉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흐라체’ 의문법 씨끝을, 그것의 형성 과정을 문법화와 관련지으면서, 형태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15세기 및 그 이후의 한국어와 제주도 방언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맺음씨끝으로,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야’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둘째로, 위와 같이 분석하게 되면, 그에 선행하는 요소들인 ‘-은다, -옴다-, -으니-, -으리-’도 분석해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은다’는 ‘2인칭 현실 안맺음씨끝’으로, ‘-옴다’는 ‘2인칭 의도 안맺음씨끝’으로, 그리고 ‘-으니-’는 ‘비인칭 현실 안맺음씨끝’으로, ‘-으리-’는 ‘비인칭 추정 안맺음씨끝’으로 풀이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매김꼴+대인칭씨+잡음씨’가 문법화하여 형성된 것임도 아울러 밝혔다.

이와 같이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제로 형태소를 설정하지 않고서도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고, 나아가서는 기존의 논의를 따른다면 일부의 씨끝들은 맺음씨끝으로도 안맺음씨끝으로도 쓰인다고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었다.

주제어: 흐라체 의문법,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문법화, 안맺음씨끝, 맺음씨끝

1. 들어가는 말

1.1.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이른바 ‘흐라체 의문법 씨끝을 그것의 형성 과정을 문법화와 긴밀하게 관련지으면서, 형태론적으로 검토해 보려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한국어의 서법 형식들은 상대높임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제주도 방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므로 상대높임의 등분에 대한 고찰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에 필수적인 것이 되는데, 다행히도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행 연구들이 있다.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의 등분에 대해서는, ‘평칭(平稱), 중칭(中稱), 존칭(尊稱), 극존칭(極尊稱)’(이 승녕 1957/1978) 혹은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아주 낮춤, 예사 낮춤’(박 용후 1960)¹⁾의 넷으로 나누는 견해, ‘흐라체(下稱), 흐여체(中稱), 홑서체(上稱)’의 셋으로 나누는 견해(현 평효 1977/1985), 그리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먼저 나눈 다음에 이들 각각을 다시 세분하는 견해(고 창근 1993, 김 지홍 2000)²⁾ 등이 대립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바 아니다.³⁾

-
- 1) 박 용후(1960)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아주 낮춤, 예사 낮춤’ 이외에, ‘반말’(中性稱)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반말’은 “대중말과 다름이 없다.”(박 용후 1960 : 347)라고만 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 2) 고 창근(1993)은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먼저 나눈 다음에, 전자에는 ‘흐라체’와 ‘홑서체’를 소속시키고, 후자에는 ‘흐여체’와 ‘흐여마씀체’를 소속시키고 있다. 반면, 김 지홍(2000)은 상위 자질로서 [+격식]을 설정하고 나서, 다시 하위 자질로서 [+대위]를 설정하고 있다
 - 3) 이 밖에도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의 등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으나,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의 등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그러나 이 승녕(1957/1978)의 ‘평칭’이나 박 용후(1960)의 ‘아주 낮흙’은, 용어상의 차이를 제외한다면, 현 평효(1977/1985)의 ‘흐라체’와 다르지 않으며, 김 지홍(2000)의 ‘[+격식], [-대우]’도 내용상으로는 ‘흐라체’에 포괄될 수 있다. 이처럼 어느 입장에 서든지 간에,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흐라체’는 모두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본다.

1.2. 지금까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씨끝으로 거론되어 온 것으로는 ‘-나, -니, -나, -네, -다, -디, -가, -고, -카, -코, -르레/르라, -지’(김 미경 1987, 홍 종립 1999)를 비롯하여, ‘-디에, -니에, -쥐, -순, -까’(홍 종립 1999) 등이 있다. 그러나 김 미경(1987)에는, 문법적으로 의문법 씨끝으로 보기 어려운 것들(-나, -지)과, 이른바 부가의문을 나타내는 것(-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표준 한국어의 영향으로 보이는 것들(-르레/르라)도 들어 있는데, 이들은 본고에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그리고 홍 종립(1999)에서 확인의문으로 들고 있는 ‘-계계(-디에, -니에)’와 ‘-쥐도 이 글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제주도 방언에서 문법적으로 전형적인 ‘흐라체’ 의문법에 나타나는 것들 가운데, 논의의 여지가 큰 것으로 보이는, ‘-디아/디, -니아/니, -리아/리⁴⁾’로 그 대상을 한정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1.3. 우리는 하나의 ‘방언’이라고 할 때에는 그 상위 언어로서의 한국어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연구는, 그 방언에 나타나는 특수한 측면의 규명과

자세한 것은 고 창근(1993:9~11) 및 김 지홍(2000)으로 미룬다.

4) ‘-리아/리’에 대해서는 3.1.4.에서 설명하겠다.

더불어, 그 ‘특수성’이 상위 언어인 한국어와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도 함께 고찰해야 한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들어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어의 의문법 일반을 전제로 하면서,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나타나는 특성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특성은 어디에서 연유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씨끝의 형성 과정을, 주로 15세기의 한국어 및 그 이후의 한국어의 변천 과정과 긴밀하게 관련지으면서 논의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러한 작업이 궁극적으로는 한국어의 의문법과 관련하여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2. 15세기 한국어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2.0.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과의 비교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먼저, 이 글에서 필요한 정도로만 간략하게, 이 둘을 비교하면서,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등을 찾아 보기로 한다.

2.1.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가운데에서 현대 표준 한국어의 그것과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가, -고’(물음토씨)에 의한 의문법이 존재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이들 ‘-가, -고’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선택되었었다는 사실(허 용 1975 : 367~370)일 것이다. 이러한 15세기의 의문법과 비슷한 현상이 제주도 방언에도 존재한다는 것은, 홍 중립 (1975) 등에 의하여, 일찍부터 보고

된 바 있다. 즉, 제주도 방언에도 15세기 한국어의 ‘-가, -고’에 의한 의문법과 비슷한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 ‘-가, -고’ 가운데의 어느 것이 선택되는가는 의문사의 유무에 따른다는 것이다.

- (1) ㄱ. 이 쓰리 너희 종가(월석 8:94)⁵⁾
 ㄴ. 엇논 藥이 무스 것 고(월석 21:215)
- (2) ㄱ. 이거 느네 물가?(이거 너희 말이니?)(홍 종립 1975:159)⁶⁾
 ㄴ. 이거 누게네 물고?(이거 누구네 말이니?)(홍 종립 1975:158)

(1)은 15세기 한국어의 예이고, (2)는 제주도 방언의 예인데, 여기의 밑줄 친 ‘-가, -고’는 모두 앞의 이름씨에 직접 연결된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으며,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가가 쓰이고, 의문사가 있을 때에는 ‘-고’가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2.2. 그런데 15세기 한국어에는, 위의 ‘-가, -고’에 의한 의문법만이 아니라, 굴곡 범주로서의 의문법도 현대의 표준 한국어와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었다(허 응 1975:495~516)는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 (3) ㄱ. 너희 이 供養 밍⁷라 國王을 講⁸스보려 흐는다 王子를 講⁸스보려 흐는다(월석 21:195)
 ㄴ. 네 엇던 헤⁹로 나를 免¹⁰케 홀다(월석 21:56)
- (4) ㄱ. 西京은 편안 호가 물호가(두인 18:5)

5) 이 글에서 인용하는 15~16세기 문헌의 예들은, 모두 허 응(1975) 및 허 응(1989)에서 재인용한 것들이다. 따라서 옛 문헌의 줄인 이름도 허 응(1975)과 허 응(1989)의 그것을 따랐다.

6) 이하에서 제주도 방언 관련 논저에서 예를 인용했을 때에는 그 출처를 하나하나 밝히도록 하겠다. 다만, 부분적으로 필자가 수정한 경우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일일이 밝히지 않았다

ㄴ. 이 이런 엇던 因緣으로 이런 相이 現_호고(법화 3 : 112)

(3)~(4)는, 허 웅 (1975)에서 이른바 ‘인칭 물음법’이라 부른 것으로서, ‘-은, -을’을 앞세웠을 때에는, 주어가 2인칭이면 ‘-다’가 나타나고, 1-3인칭이면 ‘-가/고’가 나타나는 것을 보인 예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 의문사가 없으면 ‘-가’가 선택되고, 의문사가 있으면 ‘-고’가 선택되는 점은, 앞의 (1)과 같다.

(5) ㄱ. 모든 緣塵과 마스미 念慮와 和合 아니잇가(능엄 2 : 101)

ㄴ. 스승넉 어마니미 이에 잇다 호야 뒤 니르더니잇고(월석 23 : 84)

(5)는, ‘-으니-’(및 ‘-으리-’)를 앞세우는 ‘-가, -고’, 그리고 잡음씨의 특별한 예에서 보이는, 이른바 ‘비인칭 물음법’의 예이다(허 웅 1975 : 496). 앞의 ‘인칭 물음법’이 상대높임을 동반할 수 없음에 비하여, ‘비인칭 물음법’은 그것을 동반할 수도 있으며, ‘-가’와 ‘-고’의 선택은, 주어의 인칭과는 관계없이, 의문사의 존재 유무하고만 관련이 된다(허 웅 1975 : 505).

이와 아주 흡사한 현상이 제주도 방언에 존재한다는 것도, 홍종립(1975) 등에 의하여, 일찍부터 알려져 있었는데, 다음은 그 예이다.

(6) ㄱ. 는 아라 국민 학교 학생 인디아?(넌 아라 국민학교 학생이니?)(정 승철 1985 : 418)

ㄴ. 는 어느 학교 학생 인디?(넌 어느 학교 학생이니?)(정 승철 1985 : 418)

(7) ㄱ. 이거 느네 책 이니아(냐)?(이거 너희 책이니?)(정 승철 1985 : 418)

ㄴ. 이거 누게네 책 이니?(이거 누구 책이니?)(정 승철 1985 : 418)

(6)은 주어가 2인칭인 경우의 예인데, (6)ㄴ에는 의문사 ‘어느’가 있는 반면에 (6)ㄱ에는 의문사가 없다. 이에 따라 (6)ㄴ에서는 ‘-디’가 나타나지만, (6)ㄱ에서는 ‘-디아’가 나타나고 있다. 이 점은 15세기 한국어의 그것과 약간 다른 점이다. 즉, 15세기 한국어의 ‘2인칭 물음법’은 의문사의 유무에 좌우되지 않는 데에 비하여(허 용 1975 : 497), 제주도 방언의 ‘-디아, -디’는 주어가 2인칭일 때에만 쓰임에도 불구하고 의문사의 유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 (7)은 주어가 3인칭인 경우인데, 의문사가 있는 (7)ㄴ에서는 ‘-니’가 쓰였고, 의문사가 없는 (7)ㄱ에는 ‘-니아(냐)’가 쓰였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⁷⁾

2.3. 그런데, 제주도 방언의 ‘-가/고’, ‘-디아/디’, ‘-니아/니’의 쓰임은 대략 위와 같이 정리한다고 해도, 이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다시 말해, (2)의 ‘-가/고’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6)~(7)의 ‘-디아, -디’ 및 ‘-니아, -니’를 각각 하나의 형태소로 보기에선 석연치 않은 점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다음의 예에서 금방 확인이 된다.

- (8) ㄱ. 밥 먹었시니아(냐)?(밥 먹고 있니?)
 ㄴ. 무스거 먹었시니?(무엇을 먹고 있니?)(현 용준 1980 : 910)
 (9) ㄱ. 밥 먹어시니아(냐)?(밥 먹었니?)

7) 단, (6)~(7)의 예를 ‘인칭 물음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홍 중립(1975 : 176)은 “‘-디’계와 ‘-니’계는 주어의 인칭적 제약을 받아, 전자는 2인칭과 후자는 3인칭과 호응”하며, “후자의 경우에도 2인칭 주어와 호응하는 일이 있지만 일반적이라 할 수 없다.”라고 본다. 반면 정 승철(1985 : 420)은, ‘-디-’가 언제나 2인칭 주어에만 호응하지만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디-’에 ‘2인칭 활용어미’라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ㄴ. 무스거 먹어시니?(무엇을 먹었니?)(현 용준 1980 :914)

위의 예문에서, 상세한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밑줄 친 부분들의 문법적 역할이 ‘낮춤, 의문, 문장 종결’이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법적 역할은 (8)~(9)에 공통되고 있는데, 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8)ㄱ, ㄴ의 ‘-엄시-’와 (9)ㄱ, ㄴ의 ‘-어시-’(현 평효 1975/1985 :35~45, 45~50)를 제외하고는, 차이가 있다면, 의문사가 없는 (8)ㄱ, (9)ㄱ에는 ‘야’가 있고, 의문사가 있는 (8)ㄴ, (9)ㄴ에는 그것이 없다는 점뿐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대로 기계적으로 분석해 낸다면, (8)ㄱ, (9)ㄱ의 ‘-니아’는 의문사가 없는 문장에서 ‘낮춤, 의문, 문장 종결’을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이고, (8)ㄴ, (9)ㄴ의 ‘-니’는 의문사가 있는 문장에서 ‘낮춤, 의문, 문장 종결’을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라고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데 (8)~(9)의 밑줄 친 부분에서 ‘니’는 양쪽 모두에 공통되고 있으므로, 예컨대 (8)ㄱ은 ‘먹+엄시+니+야’로, (8)ㄴ은 ‘먹+엄시+니’로 분석하고 싶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렇게 분석을 하고 나면, (8)ㄴ의 ‘-니’는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맺음씨끝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이러한 입장에서는 (8)ㄱ의 ‘먹-엄시-니-야’를 맺음씨끝 ‘니’에 다시 ‘야’라는 요소가 첨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여, (8)ㄱ, ㄴ과 (9)ㄱ, ㄴ의 ‘-니아’와 ‘-니’를 더 이상 분석하지 않은 채, 각각 ‘먹+엄시+니아(냐)’(8ㄱ)와 ‘먹+엄시+니’(8ㄴ) 및 ‘먹+어시+니아(냐)’(9ㄱ)와 ‘먹+어시+니’(9ㄴ)로 분석하여, ‘-니아(냐)’와 ‘-니’에는 의문법 씨끝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겠다(홍 종립 1999 :103). 이렇게 처리하는 것도 분명히 하나의 해결책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분석을 했을 때에

는, (8)~(9)의 밑줄 친 부분에서 ‘니’만이 나타나지 않는 (8)~(9)’와 같은 예가 있어서 문제가 된다.

- (8) ㄱ. 밥 먹엄시아(샤)?(밥 먹고 있니?)
 ㄴ. 무스거 먹엄시?(무엇을 먹고 있니?)
- (9) ㄱ. 밥 먹어시아(샤)?(밥 먹었니?)
 ㄴ. 무스거 먹어시?(무엇을 먹었니?)

위와 같은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쉽게 떠오르는 생각은 의문법 씨끝이 생략되었다고 보는 방법이다.⁸⁾ 그러나 이와 같이 설명하려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는, (8)ㄴ과 (9)ㄴ에서는 물음을 나타내는 ‘-니’가 완전히 생략되는 데에 비해서 (8)ㄱ과 (9)ㄱ에서는 왜 ‘-니아’의 ‘니’만이 생략될까 하는 점이다. 둘째는, (8)~(9)의 ‘-엄시-’와 ‘-어시-’는 각각 이른바 ‘미완료존속상’(현 평효 1975/1985 : 35~45)과 ‘완료존속상’(현 평효 1975/1985 : 45~50) 등으로 설명되어 온 안맺음씨끝임이 분명한 것인데, (8)ㄴ과 (9)ㄴ처럼 그것이 문장을 끝맺는 역할을 할 수 있는냐는 점이다.

이러한 예들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씨끝을 새롭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 주는 것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나타나는 ‘-디아’와 ‘-디’, 그리고 ‘-니아’와 ‘-니’(및 ‘-리아’와 ‘-리’)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들의 형성 과정을 15세기 한국어의 ‘-가, -고’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고자 한다.

8) 실제로 정 승철 (1985 : 418, 주12)에서는 ‘발음의 편의상’ 의문법 어미 ‘니’는 흔히 생략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홍 종립 (1999 : 99~100)에서는 ‘-으니’의 ‘니’가 탈락한다고 설명하면서도, 왜 한 형태소의 일부가 탈락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3.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씨끝의 형태 분석

3.1. 형태소 ‘-아’

3.1.1. 우선 제주도 방언에서 ‘-디아’와 ‘-디’가 쓰인 예를 보기로 하는데, 다음은 현 용준(1980)의 부록에 실려 있는 것을 필자가 약간 수정한 것이다.

- (10) 가. 밥 먹을티아⁹⁾?(밥 먹겠니?)(현 용준 1980 : 908)
- 나. 무스거 먹을티?(무엇을 먹겠니?)(현 용준 1980 : 908)

(10)가 의 밑줄 친 부분은, 홍 중립(1999 : 103)과 같이, 일단 ‘먹(줄기)+음(의도)+디아(의문법 씨끝)’로 분석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분석을 했을 때에는, (8)~(9)의 ‘-니아, -니’에서 보았던 것처럼, (10)나 의 ‘을티’를 맺음씨끝으로 보아야 하고, 거기에 다시 ‘-야’가 덧붙고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 보지 않을 수 없는데, 무엇보다도 ‘먹음디’의 ‘음’이 매김꼴에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것은 좀 더 극한 분석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 즉, ‘먹(줄기)+음(매김꼴)+디(메인이름씨)+이(잡음씨)+아(의문형 씨끝)’로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처럼 ‘디’의 기원을 ‘디+이’에서 찾는 것은, 무엇보다도 ‘ㅣ’가 없다면 ‘티아’ 혹은 ‘타’로 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디’를 ‘디’라고 가정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개음화가 일반적인 제주도 방언에서 ‘디’이 홀소리 ‘ㅣ’의 앞에 오고

9) ‘티아’는 홀소리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티야’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타, 타’로 축약되어 발음되기도 한다. 이것은, 뒤에서 보게 될, ‘디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혹은 ‘치아’)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먹을타(티아)’를 ‘먹을차’로 발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홍 종립 1975: 168), 더구나 (10)ㄴ의 ‘먹을티’는 어떠한 경우에도 ‘먹을치’로 발음되는 일이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디’를 ‘ㄷ+이’로 분석하는 것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ㄷ+이’의 ‘이’는 잡음씨의 줄기로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왜냐하면, ‘디’의 ‘ㄷ’을 메인이름씨 ‘딛’에서 기원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의 뒤에 오고 있는 ‘이’는 토씨 아니면 잡음씨인데, 표준 한국어의 ‘-을 것(이)-’와 같은 예를 통하여 유추해 본다면, 그것은 잡음씨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은 ‘-아’는 15세기 한국어의 의문법 씨끝 ‘-가’가 잡음씨의 줄기 ‘이’ 아래에서 ‘ㄱ’이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ㄱ’ 탈락은 15세기에는 매우 일반적인 것으로서, ‘-으니-’와 ‘-우리-’의 뒤에서 ‘-가’가 ‘-아’로 변동하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현상이었다(허 웅 1975: 509~510).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예를 가지고 반론을 펼 수가 있을 것이다.

- (11) ㄱ. 너미 재기 먹당 체홀이여.(너무 빨리 먹다가 체할라.)
 ㄴ. 조심해라, 푸더질이여.(조심해라, 넘어질라.)

예 (11)은 홍 종립(1999: 96)에서 가져 온 것인데, (12)ㄱ, ㄴ의 밑줄 친 부분을 각각 ‘체홀+ㄱ+이여’ 및 ‘푸더지+ㄱ+이여’로 보고 여기의 ‘ㄱ’을 이른바 동명사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홍 종립(1999: 96)도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주도 방언에서 소위 동명사 ‘-웁’이 쓰인 예는 이 정도에 지나지 않

으므로, 그것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다루거나 화석화된 형태로 보아 분석을 달리하는 것이 더 문법의 설명을 간결하게 해 줄 것이다.¹⁰⁾

3.1.2. 앞에서 우리는 매김꼴 ‘-웁’에 메인이름씨 ‘ㄷ’가 이어지면서 의문법의 형성에 참여한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ㄷ’에 매김꼴 ‘-은’이 선행하는 예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예를 찾을 수 있다.

- (12) 가. 는 학교 신디아?(너는 학교에 있니?)
- 나. 는 어디 신디?(너는 어디에 있니?)

위의 밑줄 친 ‘신디아’는 ‘시(줄기)+ㄴ(매김꼴)+ㄷ(메인이름씨)+이(잡음씨)+아(의문법 씨끝)’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것은 앞에서 보았던 ‘먹을티아’와 마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단지 (12)가에서는 ‘-웁’의 자리에 ‘-은’이 왔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3.1.3. 위에서 분석된 ‘-아’는 다음에서 보게 될 ‘-니아(냐)’를 설명하는 데에도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제주도 방언에서 ‘-니아(냐)’가 쓰인 예를 보기로 하겠다.

10) 혹자는, “느 무시거 먹읍고?”(너 무얼 먹고 있니?)(홍 중립 1975 :158)와 같은 예가 있음을 들어, (11)의 ‘체 홀이여, 푸더질이여’의 ‘ㄴ’ 등과 함께 이들을 이른바 동명사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물론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간다면 그렇게 볼 가능성도 없지 않겠으나, 제주도 방언에서 공식적으로 동명사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앞의 (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름씨 다음에 ‘-가, -고’가 올 수 있는 이상, ‘먹음’과 같은 이름꼴 다음에 ‘-가, -고’가 올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 (13) 가. 밥 먹느니아(냐)?(밥 먹느냐?)
나. 어땡 먹느니?(어떻게 먹느냐?)(현 용준 1980 :907)
- (14) 가. 경도 더우니아(냐)?(그렇게도 덥니?)
나. 오닐은 무사 영 더우니?(오늘은 왜 이렇게 덥니?)

(13)가의 밑줄 친 ‘먹느니아(냐)’는, 기원적으로는, ‘먹+는(매김풀)+이(매인이름씨)+이(잡음씨)+아(의문법 씨끝)’로 최대한 분석할 수 있다.¹¹⁾ 여기의 ‘는’은 매김풀이므로, 그 뒤에 매인이름씨 ‘이’가 올 수 있으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뒤에는 잡음씨의 줄기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14)는 그림씨가 쓰인 예인데, 여기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그림씨에서는 ‘-는’이 아닌 ‘-은’이 쓰이고 있다는 점도 그 어원이 매김풀이었음을 말해 주는 사실이다. 따라서 (14)가의 ‘더우니아’는 ‘덥+은(매김풀)+이(매인이름씨)+이(잡음씨)+아(의문법 씨끝)’로 분석을 하여 무리가 없다.

이와 더불어, 비슷한 구성을 보이고 있는 (10)가의 ‘먹을티아’와의 일관성을 위해서도 ‘먹느니아’와 ‘더우니아’에는 매인이름씨 ‘이’가 녹아 있는 것으로 보는 편이 좋다. 즉, ‘먹을티아’에 ‘ㄷ’가 녹아 있다고 한다면, ‘먹느니아’와 ‘더우니아’에 ‘이’가 녹아 있다고 보지 않을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러한 매인이름씨 ‘이’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잡음씨의 줄기 ‘이’가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이들 예에서도 ‘-가’의 ‘기’ ‘ㅣ’ 아래에서 탈락하는 것은 앞(3.1.1.)의 경우와 같다.

11) 필자는 고 영진(1995)에서 표준 한국어의 의문법 씨끝 ‘-느냐’와 ‘-으냐’의 기원을 이와 같이 분석한 바가 있다.

3.1.4. 예문 (10)과 (12)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디’는 그것에 선행하는 것으로, 매김꼴 씨끝에 기원하는 ‘옴’과 ‘은’이 모두 가능했다. 그렇다면, (14)처럼 ‘은’을 선행시킨 데에서 온 ‘니(아)’와 짝이 됨직한, ‘을(ㅎ)’을 앞세운 것에서 기원하는 ‘리(아)’가 기대되는데, 실제로 자료를 찾아 보면 다음과 같은 예가 존재한다.

- (15) ㄱ. 게프르사 그런 걸 먹으리아?(아무려면 그런 걸 먹으랴)
- ㄴ. 그런 걸 어떻 먹으리?(그런 걸 어떻게 먹으랴)(현 용준 1980 : 909)

(15)ㄱ의 ‘먹으리아’도, 앞에서와 똑 같이, ‘먹+을(매김꼴)+이(매인이름씨)+이(잡음씨)+아(의문법 씨끝)’로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 (15)ㄱ의 ‘-으리아(랴)’는 그 뜻이 의문이라기보다는 감탄에 가까워(제주방언연구회 편 1995 : 189)지는 등, 의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의문법은 아니라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감탄’이라는 뜻도 실은 반어적인 어감을 띤 것으로서, 문법적으로는 의문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15)ㄴ에서 보는 ‘-으리’는 여전히 자문(自問)이나 반의적인 의문(제주방언연구회 편 1995 : 201)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도 문법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의문법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1.5.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10)ㄱ의 ‘먹을티아’를 비롯하여, (12)ㄱ의 ‘신디아’, (13)ㄱ~(14)ㄱ의 ‘먹느니아, 더우니아’ 및 (15)ㄱ의 ‘먹으리아’의 밑줄 친 부분을, ‘매김꼴+매인이름씨+잡음씨’가 융합하여 문법화하면서 하나의 씨끝을 형성한 것으로 보자는 것이다. 이처럼 ‘매김꼴+매인이름씨+잡음씨’의 구성이 문법화하는 예는, 15세기 한국어의 때매김 씨끝 ‘-으니-’와 ‘-으리-’에

서도 볼 수 있으며,¹²⁾ 현대의 표준 한국어에서도 ‘-을 것(이)-’를 비롯하여 적지 않은 예가 있다. 이것은 결국, 이들을 공식적으로는 각각 ‘떡+옳디+아, 시+디+아, 떡+느니+아, 덩+으니+아, 떡+으리+아’로 분석하고, 여기서의 ‘-아’를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의 의문법 씨끝으로 보자는 뜻이다.

그런데 ‘옳디’와 ‘느니’는, 앞의 예 (12)와 (15)에서 보는 것처럼, ‘은디’와 ‘으리’도 쓰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더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만일 이것들을 더 분석한다면, 그것은 각각 ‘-옳+디’와 ‘-느+이’(및 ‘-은+디’와 ‘-을+이’)가 될 터인데, 공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지나친 분석이다. 이러한 분석을 따른다면, 이들은 ‘매김꼴+매인이름씨’ 구조가 되므로, 그 뒤에 잡음씨가 생략된 것으로 보거나 이름씨에 직접 ‘-아/의¹³⁾’가 연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제주도 방언에서 잡음씨나 이름씨 뒤에 오는 의문법 씨끝(혹은 토씨)은 ‘-가/고’이지 ‘-아/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옳디-’와 ‘-느니-’(및 ‘-은디-’와 ‘-으리-’)를, 이미 문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곧 하나의 씨끝이 된 것으로 보는 편이 더 문법의 설명을 간결하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

그렇다면, 이제 위에서 분석한 ‘-은디-, -옳디-’와 ‘-으니-, -으리-’의 문법적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우리는 검토할 필

12) 허 응(1987: 212)에 따르면, 15세기 한국어의 ‘-으니-’와 ‘-은(-)’은 어원을 같이하며, ‘-으리-’와 ‘-을(-)’도 어원을 같이한다고 한다. 이를 좀 더 구체화하여 필자는, 고 영진(1996)에서 15세기의 ‘-으니-’와 ‘-으리-’에 매인이름씨 ‘이’가 녹아 있는 것으로 보고, 예컨대 ‘-으니라’를 ‘-은(매김꼴)+이(매인이름씨)+이(잡음씨 줄기)+라(서술형)’로 분석한 적이 있다.

13) 이 ‘-의’에 대해서는 3.2.에서 설명하겠다.

요가 있다.

먼저, 필자는 ‘-은디-, -웁디-’와 ‘-으니-, -으리-’의 쓰임은, 홍 종립 (1975)에서와 같이, 주어의 인칭에 따른 것으로 본다. 물론 최근에는 ‘-으니-, -으리-’도 2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원래부터 그렇게 쓰였다고 보다는, ‘-으니-, -으리-’의 쓰임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하는 편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2인칭 주어와 ‘-으니-, -으리-’가 호응할 때에는 말이 되기는 하지만 별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홍 종립 1975 :177)는 사실과 함께, ‘-은디-, -웁디-’는 언제나 2인칭 주어하고만 어울린다는 사실을 설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어느 한 편에 인칭 제약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한 편에도 과거 어느 시기까지는 인칭 제약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은디-’는 ‘2인칭 현실 안맺음씨끝’으로, 그리고 ‘-웁디-’는 ‘2인칭 의도 안맺음씨끝’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으니-’와 ‘-으리-’는 주어의 인칭에서 이와 대립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들은 ‘1-3인칭 안맺음씨끝’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들도 2인칭 주어와 함께 쓰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으니-’는 ‘비인칭 현실 안맺음씨끝’으로, ‘-으리-’는 ‘비인칭 추정 안맺음씨끝’으로 풀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풀이는 ‘-으니-’가 움직씨와 함께 쓰일 때에는 ‘-느니-’가 된다는 것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3.2. 형태소 ‘-의’

3.2.0. 이제 우리는, (10)ㄴ의 ‘먹을티’와 (13)ㄴ의 ‘먹느니’ 및 (15)ㄴ의 ‘먹으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해명할 차례

가 되었다. 먼저 (10)ㄴ의 ‘먹을티’부터 보기로 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필자는 (10)ㄴ의 ‘먹을티’를 ‘떡+옴(배김풀)+ㄷ(배인이름씨)+이(잡음씨)+오(의문법 씨끝)¹⁴⁾’에서 기원한 것으로 일단 가정한다. 그리고 (13)ㄴ의 ‘먹느니’와 (15)ㄴ의 ‘먹으리’는 각각 ‘떡+는(배김풀)+이(배인이름씨)+이(잡음씨)+오(의문법 씨끝)’ 및 ‘떡+을(배김풀)+이(배인이름씨)+이(잡음씨)+오(의문법 씨끝)’에서 기원한 것으로 가정한다.

위와 같은 분석은, 필연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떡-옴-ㄷ-이-오’와 ‘떡-는-이-이-오’ 및 ‘떡-을-이-이-오’에서 ‘먹을티’와 ‘먹느니’ 및 ‘먹으리’로 되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기로 하는데, 이를 설명하는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3.2.1.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떡-옴-ㄷ-이-오’와 ‘떡-는-이-이-오’ 및 ‘떡-을-이-이-오’에서 의문법 씨끝 ‘-오’가 생략되었다고 보는 방법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문법적으로 의문법이란, 기본적으로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것(허 용 1975: 487)이기 때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그 씨끝이 특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러나 의문사를 포함하고 있는 의문문은, 특별한 씨끝이 존재하지 않아도, 그것이 의문문이라는 것을 누구라도 한눈에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문임을 나타내는 씨끝 ‘-오’가 없어도 그것이 의문문이라는 사실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이다.

14) 이 ‘-오’는, 앞(3.1.1.)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고’의 ‘-이’ 아래에서 탈락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이것은 다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오’가 생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데 이것은 언어 변화의 한 원인이 ‘노력 경계’ 현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즉, 의문사를 가진 의문문에서 그것이 의문문임을 표시하는 ‘-오’는 잉여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의문사의 유무에 따라 씨끝이 달라지는 제주도 방언에서도, 의문사가 이른바 부정(不定)의 뜻으로 쓰일 때에는 맺음씨끝이 반드시 ‘-아’ 계열이라는 데에서도 어느 정도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오’가 쓰이지 않게 된 배경에는 이러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3.2.2. 그러나 위와 같은 설명은, 대단히 아쉽게도, 역사적인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제주도 방언에서는, 그 근거가 대단히 박약하기 때문에, 역시 하나의 가설로 남겨 둘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시적인 의문법 씨끝의 하나로 제로(zero) 형태소를 설정해야 한다는 부담까지 따른다. 그러므로 다른 설명 방식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는 역사적인 자료들을 참고하기로 한다. 먼저 15~16세기의 예들을 검토해 보겠다.

- (16) ㄱ. 하늘 風流 | 엇더흐시니(천강곡 상, 기51)
ㄴ. 師子尊者의 ... 國王이 ... 문즈와 닐오디 師는 蘊이 부요
물 得호야 겨시니 대담호디...(남명, 상 :53)

허웅(1975 : 513~514)은, 위의 예를, 밑줄 친 ‘엇더흐시니’와 ‘겨시니’의 다음에 ‘-잇고, -잇가’가 생략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허웅(1983 : 169)에서는, 이와 비슷한 16세기의 예들을 공시적으로 설명하는 데에는, 맺음씨끝 ‘-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다.

- (17) ㄱ. 이제는 귀운 엇더흐니(편지 30, 선조)
 ㄴ. 너히 누에들 다 치더라터니 엇더니(무덤 편지 57)

즉, “「-이다」에서 /이/가 앞 음절로 스며든 흔적만 남기고 「-이다」가 줄어들면서 씨끝 「-의」를 발달시킨 것(→63쪽)과 같이, 「-잇고」에서도 역시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고 물음의 「-의」 씨끝을 만들어 내”(허 용 1991 : 72)기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감안하면서, (17)의 밑줄 친 부분에서 우리의 논의와 직접 관련이 되는 부분만을 분석한다면, 그것은 각각 ‘엇더흐+니(확정법)+이(의문법 맺음씨끝)’ 및 ‘엇더+니(확정법)+이(의문법 맺음씨끝)’가 될 것이다. 게다가, 예 (16)의 ‘-의’는 15세기에는 그 높임의 등분이 그대로 유지된 듯하나, 16세기에 이르러서는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말 정도로 그 등분이 낮아진다(허 용 1991 : 72, 73)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는, 15~16세기(특히 16세기)에는 ‘-잇고’가 그대로 쓰인 문장과, 새로이 형성된 ‘-의’가 쓰인 문장이 공존하고 있었으며, 둘째는 ‘-의’의 등분에 변화가 생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현상은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설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제주도 방언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도 어느 시기엔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법이 모두 존재하고 있었다고 가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8) ㄱ. 무스거 먹을티오?
 ㄴ. 무스거 먹을티?=(10ㄴ)
 (19) ㄱ. 무스거 먹느니오?
 ㄴ. 무스거 먹느니?=(13ㄴ)

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당시에

는 ‘아주높임(흡서체)’으로서는 ‘먹을티잇고, 먹느니잇고’가 있었고, 그보다 한 단계 낮은 등분으로서 ‘먹을티오, 먹느니오’가 있었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표준 한국어에 ‘먹느뇨’와 같은 예가 있음을 고려한 재구이다. 이처럼 가정하는 것은, 16세기 한국어의 언어적 사실과 바로 통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 곧, (18)ㄴ과 (19)ㄴ의 ‘먹을티’와 ‘먹느니’를, 각각 ‘먹+옴디+이’와 ‘먹+느니+이’로 분석을 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분석은, 현 평효(1985:571)에 ‘-암시니’(-고 있니?)와 같은 뜻으로 ‘-암시어’가 실려 있다는 데에서도 뒷받침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의 입장에 따라 분석한다면, ‘-암시(시상)+이(의문)’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제주도 방언의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의 맺음씨끝으로 ‘-이’가 분석되어 나옴을 본다. 그러나 필자는 이것의 기저형은, 16세기 한국어의 그것과 같이, ‘-의’로 보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한다. 물론 ‘-의’의 ‘으’는 이른바 ‘고름소리’인데, 제주도 방언에서는 ‘-의’에 선행하는 ‘-은디-, -옴디-’와 ‘-으니-, -으리-’ 등이 모두 홀소리로 끝나고 있으므로, 이것은 언제나 ‘이’로 실현된다. 그러므로 고 창근(1993:12~13)과 문 숙영(1998)에서처럼, ‘-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의 형성에는 역사적으로 ‘이-스며들기’(허 웅 1991:63)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일단 ‘-의’로 보기로 한다.

이와 같은 분석은, 제주도 방언에서도 그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어느 시기엔가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씨끝 ‘-오’와 ‘-의’가 서로 공존하다가, 후자가 살아 남은 것으로 해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⁵⁾ 이 경우에 높임의 등분이 문제가 될

15) 그 이유는, 아마도, 말하기에 들이는 노력을 덜기 위(허 웅 1981:460)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수 있으나, 16세기의 ‘-의’가 15세기의 그것에 비하여 등분이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방언에서도 ‘-의’는 그 등분이 낮아지면서 ‘ㅎ라체’가 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¹⁶⁾

3.2.3. 이와 같이,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의 맺음씨끝으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서는 ‘-아’를 설정하고,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서는 ‘-의’를 설정하게 되면, 앞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은 남김없이 해결된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먹을티야’와 ‘먹을티’ 및 ‘먹느니야’와 ‘먹느니 처럼’ 대립되는 의문문의 체계를 깨끗하게 기술할 수 있다. 둘째로, (8)‘ㄴ과 (9)‘ㄴ과 같은 예를 유효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는 ‘-니아’와 ‘니’를 하나의 씨끝으로 분석하고 있으므로, 이 입장에 따른다면, “먹엄시니아?”와 “먹어시니아?”에서 밑줄 친 ‘니’가 생략되어 “먹엄시아?, 먹어시아?”로 되는 것은 ‘-니아’라는 한 형태소의 일부분이 줄어들어 ‘아’가 된 것으로 설명해야 하며, “먹엄시니?, 먹어시니?”가 “먹엄시?, 먹어시?”로 되었을 경우에는 맺음씨끝 ‘-니’가 생략되었으므로 안맺음씨끝이 문장을 종결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맺음씨끝 ‘-아/의’는 그대로 둔 채, 안맺음씨끝 ‘-으니-’만이 줄어드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¹⁷⁾ 그리고 셋째로는, 제로 형태소를 설정

16) 필자는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의 등분은, 고 창근(1993) 및 김 지홍(2000)과 같이, 이항 대립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격식체와 비격식체를 먼저 나누고, 이어서 격식체를 ‘흡서체’와 ‘ㅎ라체’로, 비격식체를 ‘ㅎ여체’와 ‘ㅎ여마씀체’로 분류한 고 창근(1993)은 타견이다. 이것은, 이른바 ‘ㅎ여체’는 표준 한국어의 ‘해체’(반말)와 같은 것으로 본다는 의미인데, 필자도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도 방언에서는 ‘흡서체’에서 그 등분이 낮아지면 ‘ㅎ라체’(또는 ‘ㅎ여체’)가 되게 된다.

17) 그러나 이것이 생략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아’에 대립되는 형태소로서 ‘-의’를 설정하고자 한다.

4. 맺는 말

4.1. 이 글의 출발점은, 제주도 방언의 ‘ㅎ라체’ 의문법, 예컨대 ‘떡웁디아, 떡웁디’와 ‘떡느니아, 떡느니’에 보이는 ‘-웁디아, -웁디’와 ‘-느니아, -느니’를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15세기 및 그 이후의 한국어와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첫째로, 우리는 의문법의 맺음씨끝으로, 의문사가 없을 경우에는 ‘-아’가 나타나는 것으로, 그리고 의문사가 있을 경우에는 ‘-의’가 나타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여기의 ‘-아’는 15세기(및 그 이후)의 한국어를 비롯하여, 현재의 제주도 방언에서도 쓰이고 있는 의문법 씨끝 ‘-가’의 ‘ㄱ’이 탈락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의’는 16세기 한국어의 ‘-으잇고’에서 ‘이-스며들기’로 말미암아 형성된 반말 씨끝 ‘-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

남아 있다.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으로는, (8)~(9)와 (8)′~(9)′의 의미가 다른 것으로 보는 것인데, 필자의 직관으로도 이들은 약간 의미차가 있어 보인다. 예컨대, ‘떡엄시니아, 떡엄시니’는 바로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해서 쓰이는 것이 원칙이나, ‘떡엄시아, 떡엄시에’는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마도 이것은, ‘-은디-, -웁디-’와 ‘-으니-, -으리-’가 가지고 있는 양태적 의미와, ‘-엄시-, -어시-’가 가지고 있는 상적 의미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것은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위와 같이 분석했을 때에는 필연적으로 그에 선행하는 요소들 ‘-은디-, -웁디-, -으니-, -으리-’도 분석해 낼 것을 요구하는데, 우리는 ‘-은디-’는 ‘2인칭 현실 안맺음씨끝’으로, ‘-웁디-’는 ‘2인칭 의도 안맺음씨끝’으로, 그리고 ‘-으니-’는 ‘비인칭 현실 안맺음씨끝’으로, ‘-으리-’는 ‘비인칭 추정 안맺음씨끝’으로 풀이하였다. 이들은 모두 ‘매김꼴+대인이름씨+잡음씨’가 문법화하여 형성된 것임도 아울러 밝혔다.

이와 같은 분석함으로써 우리는, 제로 형태소를 설정하지 않고서도,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따랐을 때에는 ‘-웁디-’나 ‘-으니-’ 등이 맺음씨끝으로도 안맺음씨끝으로도 쓰인다고 설명해야 하는 문제점도 극복할 수 있었으며, ‘떡엄시니아, 떡엄시니’와 ‘떡엄시아, 떡엄시’가 동시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 등도 깨끗하게 설명할 수 있었다.

4.3. 이 글은 제주도 방언의 ‘허라체’ 의문법의 맺음씨끝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기 때문에, 본문에서 분석된 ‘-아’와 ‘-의’에 선행하는 문법적 요소들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들 가운데에, 특히 시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안맺음씨끝들이 ‘-아/의’와 함께 쓰이는 모습은 거의 논의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본문에서 분석된 ‘-은디-, -웁디-, -으니-, -으리-’의 의미를 좀 더 정밀화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가 필요한 과제 가운데의 하나이다.

〈참고 문헌〉

강 정희. 1988. 『제주 방언 연구』. 대전: 한남대학교 출판부.
 강 정희. 1990. 「방언 문법론」, 방언학의 자료와 이론. 서울: 지식산업사.

- 고 영진. 1995. 「현대 국어의 물음법 씨끝의 문법화 과정에 대하여」, 원우론집 22.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생회.
- 고 영진. 1996. 「15세기 국어 때배김법의 체계 수립을 위한 형태론적 접근—‘-으니-’와 ‘-오리-’를 중심으로—」, 배달말 21. 진주: 배달말학회.
- 고 영진. 1997. 『한국어의 문법화 과정—풀이씨의 경우—』. 서울: 국학자료원.
- 고 영진. 2002. 「제주도 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 한글 256. 서울: 한글 학회.
- 고 창근. 1993. 「제주도 방언의 청자대우법 연구—호여체 어미를 중심으로—」,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제주: 제주대학교.
- 김 미경. 1987.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연구」, 제주대 석사학위 논문. 제주: 제주대학교.
- 김 석득. 1992. 『우리말 형태론-말본론』. 서울: 탑출판사.
- 김 지홍. 2000. 「제주 방언 통사의 메개변항 설정—대우 형태소의 경우—」, 백록어문 17. 제주: 제주대학교 국어교육과 (이 글에서는 <http://nongae.gsnu.ac.kr/~jhongkim/>에 있는 것을 이용하였다.).
- 남 기십. 1978. 『국어 문법의 시제 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 탑출판사.
- 문 숙영. 1998. 「제주도 방언의 시상 형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서울: 서울대학교.
- 박 용후. 1960. 『제주 방언 연구』 제주: 동원사.
- 서 정수. 1996. 『국어문법』.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수정 증보판).
- 성 낙수. 1992. 『제주도 방언의 통사론적 연구』. 서울: 계명문화사.
- 이 남덕. 1982. 「제주 방언의 동사 종결어미 변화에 나타난 시상 체계에 대하여」, 논총 4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 이 송녕. 1957/1978. 『제주도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서울: 탑출판사.
- 정 승철. 198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 어미에 대한 일고찰」, 관악

- 어문연구 제10집. 서울: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 제주방언연구회 편. 1995. 『제주어 사전』. 제주: 제주도
- 최 현배. 1982. 『우리말본』. 서울: 정음사(아홉 번째 고침).
- 허 응. 1975. 『우리 옛말본—15세기 국어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허 응. 1981. 『국어학—우리말의 오늘·어제—』. 서울: 샘문화사.
- 허 응. 1987. 『국어 때때김법의 변천사』. 서울: 샘문화사.
- 허 응. 1989. 『16세기 우리 옛말본』. 서울: 샘문화사.
- 허 응. 1991. 『15·16세기 우리 옛말본의 역사』. 서울: 탑출판사.
- 허 응. 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서울: 샘문화사.
- 현 용준. 1980. 『제주도 무속 자료 사전』. 서울: 신구문화사.
- 현 평효. 1975/1985.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 어미 연구」, 현 평효(1985 : 3~133)에 다시 실림.
- 현 평효. 1977/1985. 「제주도 방언의 존대법」, 현 평효(1985 : 134~173)에 다시 실림.
- 현 평효. 1979/1985. 「제주도 방언 연구에 대한 검토」, 현 평효(1985 : 454~493)에 다시 실림.
- 현 평효. 1982/1985. 「제주도 방언 개관」, 현 평효(1985 : 387~453)에 다시 실림.
- 현 평효. 1985. 『제주도 방언 연구—논고편』. 서울: 이우출판사.
- 홍 중립. 1975. 「제주도 방언의 의문법에 대한 고찰」, 논문집 제8집. 서울: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홍 중립. 1999. 「현대 국어의 의문법 체계 고찰 (1)—제주 방언을 중심으로—」, 논문집 제36집. 청주: 청주교육대학교.

고 영진

610-0394

日本 京都府 京田辺市 多多羅 都谷 1-3

도시샤(同志社) 대학교 언어문화교육연구 센터 조교수

전자우편: youngko@mail.doshisha.ac.jp

<abstract>

Morphology of the Interrogative Sentence in Jeju Dialect

Ko Young-Jin

This paper is aimed to describe the morphology of the interrogative sentence in Jeju dialect.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 think that the morpheme of the yes-no question is ‘-a’, and the morpheme of the wh-question is ‘-ǻy’. This assumption can clearly explain the contrastive, interrogative system of Jeju dialect.

Second, according to the above analysis, we should analyze pre-final endings, ‘-ǻndi-’, ‘-ǻhdi-’, ‘-ǻni-’ and ‘-ǻi-’ that precede to ‘-a’ or ‘-ǻy’. We could give the meaning of [2nd personal present pre-final ending] to ‘-ǻndi-’, [2nd personal volitive pre-final ending] to ‘-ǻhdi-’, [non-personal present pre-final ending] to ‘-ǻni-’ and [non-personal non-volitive pre-final ending] to ‘-ǻi-’. And these pre-final endings were formulated in the result of the grammaticalization of adnominal ‘-ǻn/ǻ(h)-’, abstract noun ‘tA/i’ and copula verb ‘-i-’.

* **Key words:** the interrogative sentence, the morpheme of the yes-no question, the morpheme of the wh-question, grammaticalization, pre-final ending, final ending.

<논문 받은 날: 2003. 9. 22.>

<실기로 한 날: 2003. 10. 27.>